



GWANGJU F.C MATCHDAY PROGRAM

K LEAGUE
CHALLENGE



2013 No.7



VIEW

Today's Home Match

광주 vs 상주

6월 30일 (일) 19:00



Next Home Match
광주 vs 충주 7월 6일 (토) 19:00



www.gwangjufc.com



@GWANGJU_FC



/gwangjufc



/gjfc0

Photo Gallery

2013/06/16 (일) 19:00 고양전



Data

2013 K리그 챌린지 순위

K LEAGUE
CHALLENGE

순위	구단	경기수	승점	승	무	패
1	경찰 축구단	13	28	9	1	3
2	상주상무피닉스	14	27	7	6	1
3	부천FC	14	20	5	5	4
4	광주FC	14	19	5	4	5
5	FC안양	13	18	5	3	5
6	수원FC	14	14	3	5	6
7	고양FC	14	13	2	7	5
8	충주함멜	14	9	2	3	9

광주 FC 최근 5경기 전적

K LEAGUE
CHALLENGE

대회명	날짜	홈	스코어	원정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5/19	충주	2 - 2	광주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6/01	수원	1 - 2	광주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6/06	광주	1 - 1	부천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6/09	광주	1 - 0	경향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6/16	고양	0 - 1	광주

광주 FC 2013시즌 득점 순위

K LEAGUE CHALLENGE

순위	선수명	득점	경기수	득점률
1	루시오	3	14	0.21
2	박정민	2	8	0.25
3	김은선	2	10	0.20

광주 FC 2013시즌 도움 순위

K LEAGUE
CHALLENGE

순위	선수명	도움	경기수	도움률
1	루시오	3	14	0.21
2	김호남	2	12	0.17
3	마철준	1	1	1.00

K리그 챌린지 2013 광주FC 홈 경기 일정

날짜	시간	HOME	AWAY
2013.04.20(토)	14:00	광주	고양
2013.04.28(일)	14:00	광주	경찰청
*2013.05.08(수)	19:00	광주	충주
2013.05.13(월)	19:00	광주	안양
2013.06.06(목)	14:00	광주	부천
2013.06.09(일)	19:00	광주	경찰
2013.06.30(일)	19:00	광주	상주
2013.07.06(토)	19:00	광주	충주
2013.08.04(일)	19:00	광주	고양
2013.08.19(월)	20:00	광주	경찰
2013.09.01(일)	16:00	광주	부천
2013.09.15(일)	16:00	광주	안양
2013.09.28(토)	14:00	광주	수원FC
2013.10.06(일)	14:00	광주	경찰
2013.10.20(일)	14:00	광주	부천
2013.11.03(일)	14:00	광주	안양
2013.11.10(일)	14:00	광주	충주
2013.11.23(토)	14:00	광주	경찰

*FA CUP 경기

Sponsor

한양도독이 2019년 12월 25일

KJB  광주은행

joma
 우미건설

 조선대학교병원

GS&POINT

발명특허기업
주식회사 그래미


 사영·감독 그리고 김홍
롯데시네마
 수원 · 광주


광주월드컵점

 백은안과21

IBODY & BALANCE 의료법인 청연의료재단



사랑방 신문



고원국지리산산삼

모아레포트타운(주)

광주수완병원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해모수 휘트니스 클럽




중흥 골드스파&리조트
Jungheung Gold spa&resort

광남일보

수영/핑질방 **월드** 수원지구
헬스/사우나 **월드** 흑석4거리

MinSokChon
Kalbi-Naengmyon

 **무진주**

Review

집념으로 '원정 강세' 를 이어가다



광주FC가 지난 6월 16일 저녁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제14라운드 고양HFC와의 원정 경기서 전반전 추가 시간에 터진 박현의 천금 같은 헤딩 결승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뒀다. 이 날 승리로 광주는 15일 경찰축구단에 역전패 당한 3위 부천FC와의 승점 차이를 단 1점으로 좁힐 수 있었다.

광주는 전반 15분까지 볼 점유율을 높이며 우세한 경기 내용을 선보였다. 하지만 고양이가 그 이후 공세의 고삐를 당기면서 주도권은 넘어갔고 상대 공격진에게 여러 번 슈팅을 허용했다. 수비진의 악착같은 GK 김지성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긴 광주는 전반전 45분이 끝나고 추가 시간으로 접어드는 순간, 기어이 선취골이자 이 날의 결승골을 넣는다.

고양의 세트피스 상황을 잘 처리한 GK 김지성이 길게 전방으로 볼을 차렸고 김은선이 상대 오른쪽 측면 깊숙한 공간으로 연결했다. 이 볼을 '원발잡이' 루시오가 상대 수비수와의 일대 일 경합 끝에 따낸 후 예상을 뒤엎고 오른발로 지체 없이 크로스를 시도한 것. 이것을 문전으로 쇄도하던 박현이 기가 막힌 다이빙 헤딩슛으로 고양의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전 여범규 감독은 수비를 강화하면서 역습을 시도하는 형태로 맞섰다. 24분에 박정민 대신 김준엽을, 32분에 정경호 대신 여름을 투입해 측면과 중앙에서의 체력 싸움으로 고양의 패싱 게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으며 경기 막판엔 수비수 정우인까지 투입해 확고한 굳히기로 시즌 첫 2연승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Preview

광주, 그들에게 갇히어야 할 빛이 있다



7연속 무패 행진으로 4위 자리를 탈환했고 어느덧 3위 부천과는 승점 1점 차이로 좁혀놓은 광주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특히,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2패를 안겨준 상주에겐 반드시 갇히어야 할 빛이 있기에 더욱 그렇다.

여범규 감독이 지휘하는 광주FC가 오는 6월 30일 일요일 저녁 7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제15라운드 상주상무와 맞대결을 벌인다. 승리할 경우 시즌 첫 3위 등극을 노려볼 수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차피 리그 우승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극복해야 할 팀들 중 하나가 상주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결과가 중요한 일전이 될 전망이다.

일단 지난 9일 상주와 비슷한 전력을 갖춘 리그 선두 경찰축구단을 꺾음으로서 선수단의 자신감은 올라와 있다. 수비수 정우인을 시작으로 그간 부상에 신음하던 주축 선수들이 하나 둘 스쿼드에 복귀하면서 여 감독이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음은 물론 후반전 중반 이후 교체 카드를 통한 승부수 띄우기도 한결 수월해졌다.

비록 안방에서 치른 시즌 개막전에서 상주에 0-3으로 완패했지만 상주의 홈에서 열린 두 번째 대결에선 1-2로 패했어도 눈에 띄게 향상된 내용을 선보였다는 점이 이번 맞대결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금의 광주는 3월과 4월의 광주가 더 이상 아님을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증명할 시간이다.

상주상무 - 흔들림은 있어도 쓰러지지 않는 저력



'에이스' 이근호가 A대표팀에 차출되면서 상주는 흔들리는 듯했다. 6월 6일 안양 원정에서 시즌 첫 패배를 당하더니 9일 고양과의 홈경기에선 상대에게 선취골을 내주고 끌려가다 간신히 역전승을 거둔 것. 최근 3연패에 빠진 경찰축구단처럼 이제 대비를 하고 나오는 상대 팀들에게 고전을 거듭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상주는 저력 있는 팀이었다. 지난 라운드에서 충주를 꺾고 선두 경찰과의 승점 차를 기어이 1점으로 좁혔다. 특히,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였다. 이근호가 빠지자 김명운이 구세주로 등장했고 이상협, 백종환, 고재성 등이 제 몫 이상을 해줬다.

다만 그동안 이근호가 돋보이는데 그간 뒤에서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오른쪽 윙백 백종환이 경고 누적으로 이번 광주전에 뛸 수 없다는 점은 박항서 감독의 고민거리다. 덧붙여 지난 3월의 첫 맞대결 당시보다 팀 전력이나 선수단 분위기가 확실히 올라온 광주라는 점도 부담스럽다.



상주 이상협

상주에서도 빛나는 '미친 원발'

'에이스'이근호의 대표 차출로 인한 공백을 훌륭히 메우며 팀이 빨리 제 자리를 잡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K리그 시절부터 소문이 자자했던 원발은 상주에서도 변함이 없으며 지난 충주전에선 헤딩으로만 2득점 하며 문전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 득점 감각까지 뽐내고 있다. 최근 소속팀에서 박항서 감독의 신임이 가장 두텁다.

Focus

김호남 -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호남의 아들'



팀 창단 이후 두 시즌 동안 이승기가 '광주의 아들'로 불리며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군림했다면 호남 출신으로 이 지역에서 자신의 모든 축구 이력을 쌓아가는 '호남의 아들' 김호남이 그 자리를 이어받을 것인가? 다소 성급한 얘기일 수 있으나 최근 그의 무서운 상승세가 시즌 끝까지 지속된다면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그만큼 요즘 잘 나가는 김호남이다. 왕성한 활동력과 빠른 스피드, 날카로운 오른 발을 보유한 그는 시즌 초반 주로 오른쪽 윙백으로 나섰지만 4월 중순부터 여범규 감독은 그의 공격 재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측면 공격수로 끌어올리는 결단을 내렸는데, 이는 성공적이었다.

상대 PK박스 내-외곽으로의 날카로운 침투는 기대했던 그대로이고 찬스 때마다 보여주는 슈팅 타이밍과 정확도는 기대 이상이다. 또한 보다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 받았지만 수비 가담을 게을리 하지 않는 성실성은 김호남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